

통권 제 184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02

살다 보면
여행의 방법



사무랑심四無量心
심선성취



절망에 담긴 이야기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드 다harma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무상無相

드러난 선과 악의 상별보다도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칭찬하는 명예보다도
진리의 복덕성이 더욱 더 크며
마음이 넓고 크며 둥글고 차면
일체가 광대하고 원만하리라



워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워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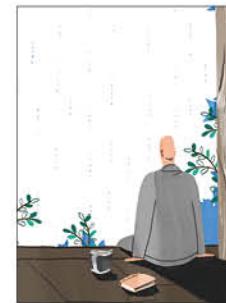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 _ 04

깨달음의
지혜와 삼학
_ 화령 정사



계율이야기 _ 14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2)
_ 법경 정사



설화속으로 _ 46

며느리의 지혜
_ 보현 전수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20 살다보면

26 향유

30 산책

32 십선성취

36 마음의 등불

40 생활 속 식물이야기

44 백유경

46 설화속으로

50 디딤돌

52 씨앗한알

56 거꾸로보기

60 독자기고

62 소통의공간

64 로드를 찾아서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루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깨달음의 지혜와 삼학 _ 화령 정사

새벽 달빛 아래서 _ 법정 스님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2) _ 법경 정사

여행의 방법 _ 이옥경

새해 다짐 _ 강동현

해돋이 _ 김대곤

사무량심四無量心 _ 덕현 전수

바다를 건너며 渡海 _ 이익

울어도 괜찮아 _ 이태용

세월이 키 크는 약 _ 동출 스님

며느리의 지혜 _ 보현 전수

처음처럼 _ 지현 전수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착각 _ 법상 스님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_ 박현희

인연 따라 온 친구 _ 여순애

지혜로운 방법 _ 틱낫한 스님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4) _ 우연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_ 법일 정사

색 _ 김재동

맥구읍인 麥丘邑人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세상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눈

도적의 눈에는 온통 도적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온통 부처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을 사느냐 하는 것은 순전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높이십시오. 안목을 높이면 그만큼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진관법_{眞觀法}이라 합니다.

둘째,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청정관법_{清淨觀法}이라 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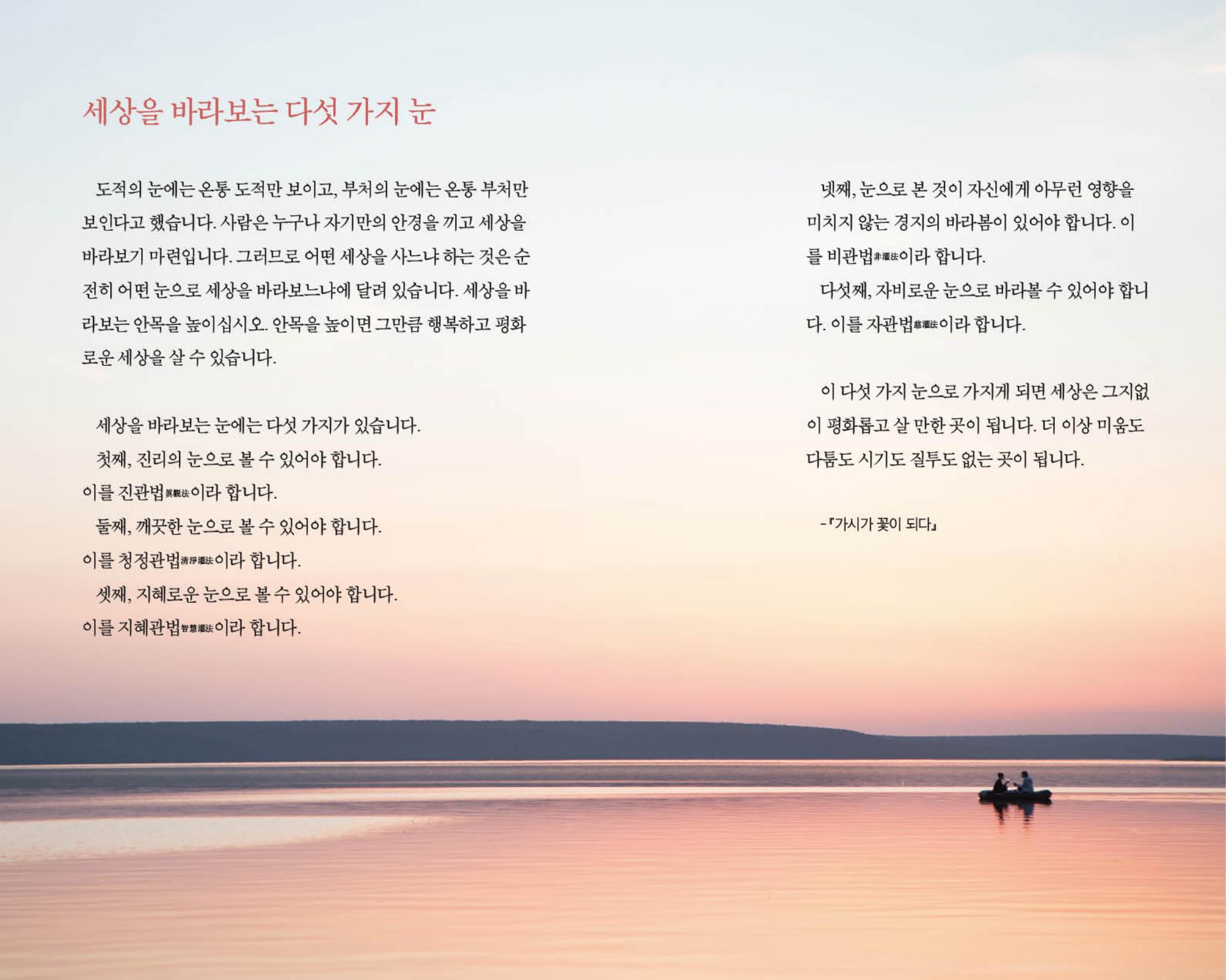
이를 지혜관법_{智慧觀法}이라 합니다.

넷째, 눈으로 본 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지의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비관법_{非觀法}이라 합니다.

다섯째,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자관법_{慈觀法}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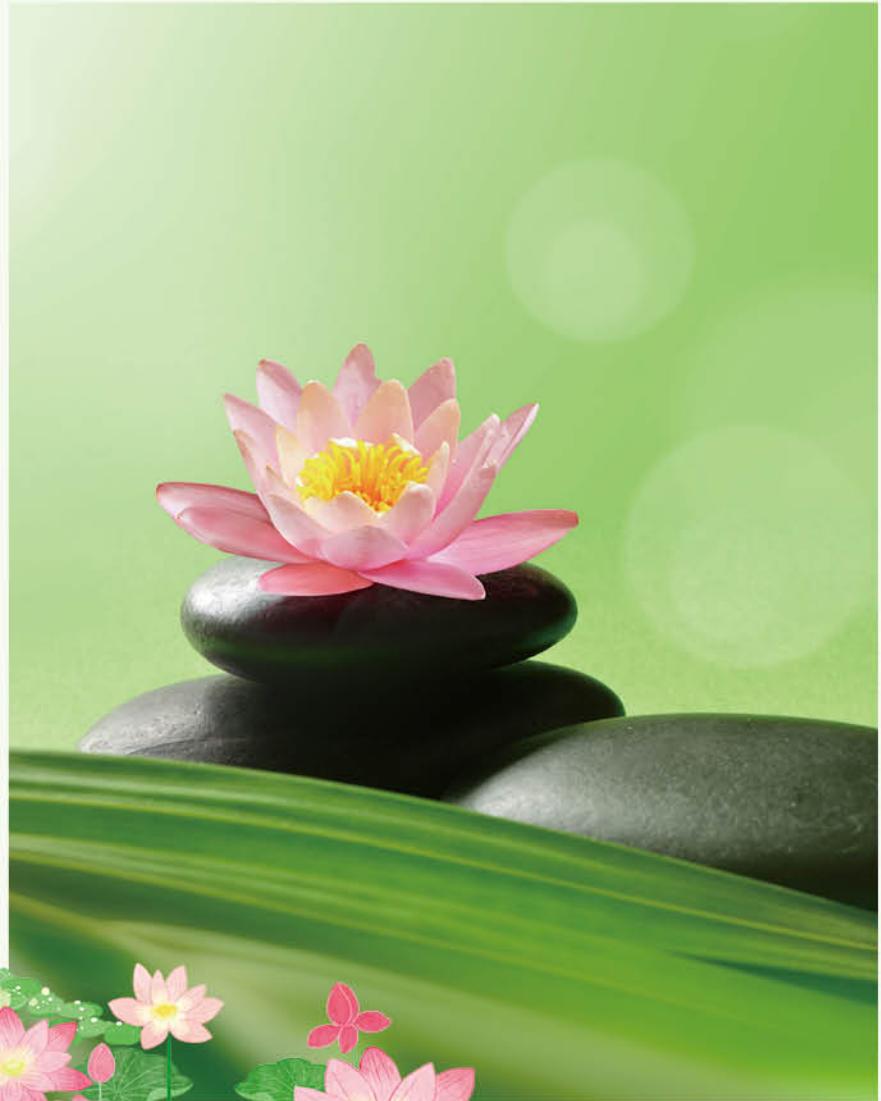
이 다섯 가지 눈으로 가지게 되면 세상은 그지없이 평화롭고 살 만한 곳이 됩니다. 더 이상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곳이 됩니다.

-『가시가 꽃이 되다』



깨달음의 지혜와 삼학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불교교리의 근본구조는 연기에서 시작해서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성제에 삼전십이행상^{三轉十二行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다섯 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시고 나서 이 사성제의 각각에 대해서 시전^{示轉}, 권전^{勸轉}, 중전^{證轉}의 삼단계로 실천할 것을 설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전으로써 사성제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권전을 통하여 사성제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권하였으며 중전으로써 사성제를 통하여 깨달음에 이른 것을 증명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교의 교리는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교의 교리는 머리만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가 실천을 통하여 직접 증득해 보지 않으면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증득이라는 것이 없으면 불교 공부는 그저 부질없는 학문상의 유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 이외의 철학이나 사상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도 실은 괴로움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철학이나 사상을 통하여 증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불교의 대전제 아래에서 증득이라는 것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그것을 먹어서 자기가 맛을 느끼고 배를 채우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득하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그 참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삼학^{三學}이라는 것을 내세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중득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을 통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안락의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 우선 교리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행이라는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어 열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십이연기를 통하여 살펴 본 것처럼, 모든 괴로움의 근본원인은 무명입니다. 무명은 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주와 인생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여 온갖 염심^{染心}을 일으킵니다. 염심이라는 것은 번뇌입니다. 이것을 흑^黑, 혹은 미흑^{迷惑}이라고 하는데, 이 흑이 온갖 업을 지음으로써 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명에서 야기된 번뇌, 즉 흑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의 칼로써 베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밝은 지혜가 나타나면 무명의 번뇌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어두운 방안에 등불을 들고 들어오면 그 순간 어둠이 없어지고 방이 한해지듯이, 지혜가 밝아지는 순간 무명은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

음을 얻기 위해서 항상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불교에서는 계, 정, 혜의 삼학을 들고 있습니다. 계라는 것은 계율입니다. 정은 선정을 말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명상과 비슷하지만 불교의 선정은 일반적인 명상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교의 선정은 괴로움을 끊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혜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삼학이라고 합니다.

계에 의하여 심신을 바르게 가지고 생활을 흐트러짐 없이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선정에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지혜가 얻어집니다. 이것이 삼학^{三學}의 구조입니다. 즉 계학^{戒學}, 정학^{定學}, 혜학^{慧學}이라고 하기 때문에 삼학인데, 여기에서의 학은 학문으로서 배운다는 의미보다도 실천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아도 절도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른 생각과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땅값이 올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나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일상생활에서의 절도와 절제를 잊고 타락하여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직장에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늦게까지 놀다가 자도 됩니다. 그

러다가 보면 아침 밥맛이 없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때는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웁니다. 영양가 있는 것만 먹다 보니 속이 기름져서 느끼합니다. 그러다 보니 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좋은 술 찾아 마십니다. 술 마시다 보니 이성에 대한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이성과 술을 마시며 늦게까지 놉니다. 몇 달 그러다 보면 건강도 말이 아니고 정신도 혼미해서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성의 꼬임에 넘어가던지 나쁜 친구의 사기에 넘어가서 어느새 돈을 다 날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싶어 그것을 만회하려다가 도박에도 손을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돈도 다 날려 버립니다. 그 다음은 완전히 폐인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지만, 외국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사람들의 76%가 그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무절제한 생활로 인해 건강과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재산마저도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무절제한 생활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혜구멍이 막혀 자신을 황폐화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불교에서는 왜 계·정·혜의 삼학에 의해서 지혜를 얻을 것을 설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흑→업→고의 삼도^{三道}가 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계→정→혜의 구조는 고를

멸하기 위한 지혜가 발생하는 구조를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혜의 삼학은 불교의 목적인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실천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삼학은 불교 수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불교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계·정·혜의 삼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삼학 이외에 불교의 다른 수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학은 이론적으로는 계→정→혜의 순서로 되어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세 가지가 모두 병행되어 행해지는 것이며, 서로 보완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



새벽 달빛 아래서

법정 스님



예불을 마치고 뜰에 나가 새벽달을 바라보았다.

중천에 떠 있는 열여드레 달이 둘레에 무수한 별들을 거느리고 있다.
잎이져 버린 돌배나무 그림자가 수목으로 그린 그림처럼 뜰가에 번진다. 달빛이 그려 놓은 그림이라 나뭇가지들이 실체보다도 부드럽고 포근하다.

밤새 개울물 소리에 씻겨 투명해진 새벽달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화집에서 본 심전 心田 안중식의 '성재수간도 聲在樹間圖'가 연상되었다.
소리가 나무 사이에서 난다는 그림인데, 표현을 달리하자면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숲속에 사는 한 사내가 달빛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사립문 쪽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찾아오는 이는 없고 바람만 휘몰아치면서 그의 머리카락과 나뭇잎이
심하게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다.

어쩌면 그는 방안에서 바람소리를 듣다가 밖에 누가 오는 듯한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와 본 것인지도 모른다.

중천에 떠 있는 새벽달을 보면서 떠오른 그림이다.

새벽달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만나보기 어렵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스물네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은혜다.

이 우주에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고
흐르면서 변화한다. 한 곳에 정지된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와
달이 그렇고 별자리도 늘 변한다. 우리가 기대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늘 살아 움직이고 있다.

무상 無常하다는 말은 허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다. 이게 우주의 실상이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 생명이 깃들이고 이런 변화의 흐름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와 삶의 묘미가 전개된다.

만약 변함없이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곧 숨이 멎은 죽음이다. 살아있는 것은 끝없이 변하면서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봄이 가고 또 오고,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그와 같이 순환한다.

그것은 살아 있는 우주의 호흡이며 율동이다.

그러니 지나가는 세월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는 세월을 유용하게 쓸 줄 아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우주의 호흡과 같은 자연스런 움직임과 흐름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고 막으려는 데 큰 병통이 있는 것 같다. 불경기로 인해 세상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돈이 잘 안 돌아가는 현상이다. 물건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상업이나 생산활동에 활기가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돈줄이 막혀 그 힘으로 움직이던 경제활동이 멈추어 선 것이다.

비전문가의 처지에서 주제 넘는 참견 같지만 우리가 몸담아 사는 세상일이니 모른 체 할 수가 없다.

세상일은 여러가지 현상이 얹히고 설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연관되어 있다. 경제현상도 경제 자체만이 아니라 경제 외적인 현상과 맞물려 있다.

경제의 주체는 재화가 아니라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이다.

경제정책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우주의 흐름을 모르고,

눈앞 일만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려고만 하니 오늘 같은 파국을 가져올 수밖에 더 있겠는가.

그사회의 모든 현상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여 전체적으로 활기찬 조

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신한국’ ‘신경제’를 내세운 집권세력들이 부패의 고리를 끊는다는 명분 아래, 생명의 원리를 무시하고 그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한 데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긴 눈으로 보면 이도 또한 이 땅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올 전기가 될 것이다.

돈이란 우리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도 뜻뜻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량적인 단위로만 보지 말고 좋은 일과 좋은 생각에 따라
다니는 우주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흐름의 오묘한 도리를 이해한다면, 그 흐름을
받아들일 자세와 그것을 값지게 활용할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혼히 하
는 말로 돈을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하라는 것도 이 에너지
의 흐름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흐름이 멈추어 한 곳에 고이게 되면 부패한다.

이것은 우주 생명의 원리다.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도 어느 한
곳에만 얹매여 갇혀있게 되면 그 이상의 성장이나 발전은 없다. 그래서
늘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물은 밤낮 없이 흐르면서 스스
로 살고 남들도 살린다.

새벽 달빛 아래서 흐름에 귀 기울이다. ▲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2)



청정한 계율 _ 45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출가자의 치부를 들춰내지 말라

구족계 具足戒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해서는 안되는 4가지의 금계 禁戒를 지난 호에서 두 가지를 이미 소개했다. 첫 번째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되 기한을 넘기지 말라는 미수구계인동숙과한계 未受具戒人同宿過限戒이고, 두 번째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경을 외우지 말라는 미수구계인동송계 未受具戒人同誦經戒이다.

이와 같은 계를 제정한 이유는 구족계를 받은 출가 수행자가 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여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계율을 어기면 바일제법에 해당되며, 바일제법은 범계 犯戒를 하였을 때 참회의 벌칙을 받게 되는 계율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다른 출가자의 치부 施物를 들춰내어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미수구계인설추죄계 未受具戒人說施戒라 한다.

네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사실인양 자기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실득도향미구자설계 實得道向未具者說戒라 한다.

미수구계인설추죄계에서 추죄 施罪란 바라이죄와 승잔죄를 의미한다. 즉 살·도·음·망 殺盜婬妄의 중죄 重罪나 성추행을 저지르는 것을 추죄라 한



다. 그런데 바라이죄를 범한 비구는 승가에서 추방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승잔죄이다. 승잔죄는 승가에서 일정기간 격리생활을 하고나서 다시 승가로 돌아오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비구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되므로 이유 없이 비구의 추죄를 재가자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성추행 등의 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일이고 죄 값 또한 당연히 치러야 하는 것이지만 승가의 위신과 출가자의 품위를 고려해서 공개적으로 발설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발설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죄를 덮고자하거나 무마코자 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참회의 벌칙을 통해 단죄~~斷罪~~하고 있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벌어지는 역기능을 경계한 것이다. 그 인연담은 이렇다.『근본유부율』의 내용이다.

어떤 비구가 고의로 정액을 내뿜는 죄를 저질러 별주~~別住~~의 벌칙을 받고나서 승가의 회합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6군비구가 이를 보고 그 비구의 죄를 들춰내어 대중에게 공개하자 비구 대중과 모든 사람들이 그 비구를 비난함으로써 승가의 위신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대중들이 이르기를 ‘출가해서 이미 오래 지나도록 범행~~梵行~~을 수습하면서도 어린애의 장난을 멈추지 못했다면 어찌 신시~~申施~~를 받을 수 있으리오.’라고 탄식하였다. 이를 부처님께서 들으시고, 이 조문을 제정하셨다.

탄식을 한 것은 존중받아야 할 비구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깊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고로 출가 수행자는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평판이 나빠져서는 안된다.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말라

네 번째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가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양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실득도향미구자설계~~實得道向未具者說戒~~ 또는 실득상인법계~~實得上人法戒~~라 한다. 즉 자기가 법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인법~~上人法~~은 세간 사람들을 뛰어넘는 우수한 법이라 는 의미로서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을 가리킨다.

자기가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구족계를 받은 사람에게 깨달았다고 말해서도 안되지만, 깨닫지도 않았는데 마치 깨달은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대망어~~大妄語~~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깨달은 것처럼 말한 것이므로, 이는 바일제가 된다. 다시 말해서 비구가 자기 생활의 식량을 얻을 수단으로 마치 자기가 큰 법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바일제라는 경죄~~輕罪~~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처님은 출가자가 단지 얻어먹기 위해 법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마치 색을 파는 여인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나쁜 일이다. 비유하면 음녀가 색을 팔아서 자활하는 것과 같이 그대들도 역시 이와 같다. 지금 미묘한 법으로 타인을 향하여 설하는 것은 마치 입과 배를 위하여 색을 팔아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어찌 비구라는 이름으로 단지 음식 때문에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인법을 설하느냐’고 훈계하였다. 설사 굶을지언정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재가자에게 법을 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출가자 스스로 도심^{道心}을 잃는 것이며, 재가자의 청정한 신심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법력을 내세우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인연담은 이렇다.『팔리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베살리의 미후강변 누각 강당에 계실 때에 크게 흥년이 들어 비구들이 탁발을 할 수가 없게 되자 승원에 있던 비구들이 결식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는 상인법을 얻지 못하였으나 거사들을 향해서 상인법을 얻은 스님네라고 떠벌이며 밥을 구하므로 부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확인하신 뒤 다음과 같이 금계^{禁戒}를 제정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입과 배를 위하여 거사들에게 상인법을 자랑하며 말하였는가. 어떠한 비구라도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상인법을 설하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바일제가 된다.”

스스로 법력이 뛰어나다고 자랑해서는 안되며 자기가 수행을 많이 했다고 우쭐대어서도 안된다. 많이 안다고 상을 내어서도 안된다. 수행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를 얻지도 못하였는데 깨달은 것처럼 언행을 일삼는 것은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여행의 방법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원고 마감을 닷새나 앞당긴다는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정신이 다 혼미해졌다. 한 달 반째 무너는 여행자, 실제는 현지인처럼 제주에서 지내고 있는 터라 머릿속에 무얼 담아둘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사나흘 빼고는 거의 매일 제주의 산간이며 해변을 쏘다녔다. 여행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정작 그럴듯하게 정리된 게 없으니 말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어안고 한숨을 푹푹 내쉬는 내게, 함께 제주살이 중인 친구가 이왕 여행 이야기를 쓸 거면 우리 얘기를 써 보라고 한다. 우리가 여행하는 방법, 그 차이점에 대해 쓰면 재미있지 않겠냐는 친구의 말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제공격인 셈이다.

흉이 될 텐데, 괜찮아? 했더니 너는 크고 넓게 보고, 나는 작고 깊게 보고, 너는 거침없고, 나는 느리고… 서로 다른 거니까,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자신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일침이라는 것쯤, 나도 안다. 나 역시 그 다름 때문에 종종 부아가 치밀곤 했었으니까.

어쨌거나, 허락을 받았으니 이런 기회가 또 오겠는가. 배려와 이해라는 이름으로 우아하게 포장하고 눌러 두었던 우리의 속마음을-달라도 너무 다른 친구와 나의 면면을 허심탄회虛心坦誠하게 한 번 풀어놔 봐야겠

다.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니 아마도 우리 서로에게 좋은 약이 될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다. 분명한 건 그녀가 참 괜찮은 친구라는 사실이다.

혹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염려하여 그녀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자면 친구는 참 게으르다. 행동도 느리고 아침에도 아홉 시든, 열 시든 깨우지 않으면 코까지 골면서 마냥 잔다. 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아 서도 한 숟가락 떠 넣고 면 산 바라보기, 한 젓가락 집어먹고 되새김질을 한다.

어딜 나가려면 준비가 한나절이고, 그러고도 무엇이든 한두 가지는 빼뜨리는 게 예사라 가던 길을 되돌리기 일쑤다. 여행지에서도 느릿느릿, 사진은 또 왜 그리 많이 찍는지. 말도 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럴 때면 백발백중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눈을 파는 참이라 전화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는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기다리고 참아야 하는 나로서는 열불이 날 일이다. 공동생활인데, 같이 여행하면서 이러저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싫은 소리도 해 봤지만 그 정도도 이해 못 하냐고, 여행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맑은 표정으로 반문을 하니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진다.

함께 장을 볼 때면 친구는 장바구니에 잔뜩 주워 담느라, 나는 그걸 덜어내느라 바쁘다. 나는 친구의 눈에 띄는 대로, 내키는 대로가 마음에 안 들고, 친구는 나의 꼼꼼한 계산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을 내민다. 상해서 버리는 음식재료가 넘쳐나도 냉장고가 그득해야 흐뭇하다는 친구와, 딱 맞고 딱 떨어지는 게 좋은 나의 성격이 매번, 보이지 않는 불꽃을 튀긴다.

친구는 자신을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해 양보한다고 말이다. 실제로도 그런 편이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중년의 아들들에게 밥은 먹었느냐, 추운데 무얼 입었느냐 시시콜콜하게 안부를 묻고, SNS는 물론,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붙들고 온 사방에다가 제주 날씨며 풍경이며 그날의 일을 일일이 알리며 깔깔거린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안녕하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고마들을 보면 귀엽다고 쓰다듬어 준다. 강아지에게 조차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드니 정말 못 말릴 다정함이다. 제주에 온 후 꼭 필요한 일 외에는 소식 두절 상태로 지내고 있는 나로서는 문화적인 충격이 크다.

‘몸에 좋은 것’ 맹신자답게 친구는 이번에도 온갖 건강식품을 엄청나게 챙겨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뜨거운 차를 시작으로 잠들기 전까지 이것저것, 다른 이것저것, 또 다른 이것저것…들을 끊임없이 먹고, 강권한다.

하지만 찬물이 체질화된 내게 아침 맷바람에 마셔야 하는 뜨거운 차

는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물 마시는 일쯤이야…! 하고 처음 몇 번은 차의 고매한 경지를 넘보기도 했으나, 물 마시는 일까지…? 하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No를 선언했건만, 서운하단다. 밥이 보약이라며 잡다한 건강식품도 정중하게 거절했건만, 통할 리 없다.

나는 여행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도 수시로 뜨거운 차를 마시고 낱낱이 기억하지도 못할 갖가지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를 좋은 것들의 충돌은 어떤 것일까, 부질없는 상상을 하는 중이다.

내가 보기엔 친구의 노래 실력은 중하_{中下} 정도.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데서나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른다.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까 내 가슴이다 조마조마한데 친구는 아주 꿋꿋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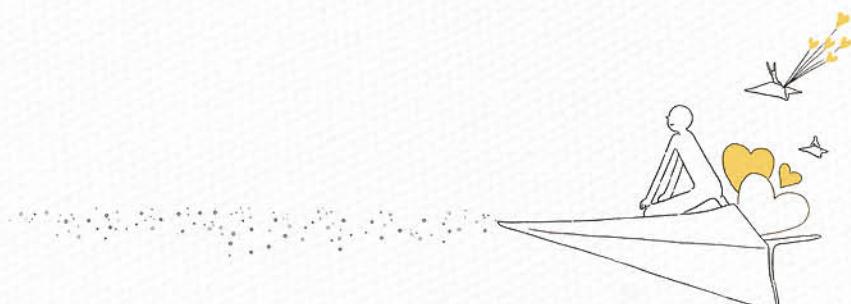
우와! 우와! 하는 감탄사도 아끼지 않는다. 청록색 바다를 보고도 우와! 주렁주렁 달린 꿀을 보고도 우와! 거센 바람에 몸을 눕히는 나무를 보고도 우와! 천진해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소리가 가식적인 것처럼 들릴 정도로 우와! 우와!

그녀와 달리 침묵하는 편인 내게는 고역이다. 소리 내면 사라질 것 같아서, 그 소중한 느낌을 가슴속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싶어서, 설령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난 최고의 찬사라 할지라도 누가 옆에서 내는 작은 소리조차도 사양하고 싶은 나로서는 자꾸 상처를 받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게도 친구에게도 이 긴 여행이 완벽한 즐거움은 아니었다.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두루 공감했지만, 일상에서는 손톱 밑에 가시를 달고 있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삶을 이해하고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극명하게 알게 되었으므로.

‘자신을 잘 다룰 때 비로소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본생담/백유경)’라는 말씀처럼, 어쨌거나 이제 나는 내가 갖고 있던 ‘정답’이라는 생각들을 적당히 덜어낼 참이다. 자신을 잘 다루는 일이야말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안 후에나 가능한 일일 테니 말이다.

여행이 내게 말한다. 여행에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기쁨과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칠정의 긴 여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인생이라는 여행을 완성한다고. 가는 길이나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희망이라는 뜻을 높이 올리고, 오늘 다시 물으로 돌아간다. ━



강동현

관성사 교도



불공 좀 해봤다고, 법문 좀 받아 봤다고, 새털 같은 나는 요즘 조금 거만한 것 같다. 내 불공하기도 벅차고 바빠서 주위를 돌아 볼 여유도 없으면서 가끔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거만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러다가 큰 법문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아차차’ 놀라고 있다. 이렇듯 자신을 여기 이 자리로 끌어 오기가 쉽지가 않다. 염주는 쥐고 있지만 불공을 하는 것인지 저주를 하는 것인지 모를 때도 있었고, 입으로는 진언을 외면서도 머리로는 저기 먼 우주까

지 갔다 온 적도 있었다. 피곤해서 염주 잡고 잠도 잘 잤고, 희한하게 아파서 잠이 안 올 때도 염주를 잡으면 수면제 먹은 듯이 잠을 잘 잔 적도 있었다. 또, 희한하게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할 때, 졸음이 살살 오려고 할 때는 옴마니반메훔을 읊는 것만으로도 졸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 장거리운전, 야간 운전, 악천후 운전에 옴마니반메훔은 특효라고 생각했다. 같은 진언, 다른 효과 같은 것이라서 엄청 놀랐던 적이 있다. 그리고 그걸 또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 꼭 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다른 보살님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생색을 내기도 한다. 뭐 증명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한 말인데 잘들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다.

불공을 하면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이 좀 속상하기는 해도 이제는 조금 적응을 하고 있다. 내가 나서서 꼭 응징을 하거나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것에 안달을 냈던 것 같은데 그 마음에도 조금 변화가 왔다. 내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도 어른들 말씀은 새겨들어야겠다는 생각도 한다. 아직 불공의 깊이가 없는 나로서는 법문을 읽어 내는 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여유도 없었는데 몇 번 그리고 나니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다. 남 흄 잡을 까닭이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쁜 사람이 더 잘 산다더라. 남 해코지 하고도 잘만 살고 있다.’는 말에 내 일도 아니지만 분개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자기 법문 자기가 받고 자기 공덕 자기가 받는다.”고 내가 화르르륵 화를 낼 때마다 엄마가 말해 주었다. 예전에는 뭔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요즘은 조금 알겠

다. 법문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법문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사는데 있어서 갈등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생각해보니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도 불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불공을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는 확연하다. 법문이 고통이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점점 더 알게 된다. 불공을 하면서 나쁜 인연들은 조금씩 멀어지고 좋은 인연들이 들어온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이 나쁜 것인지 경계가 사라진 까닭도 있지만 상대를 법문으로 생각하고 공부라고 생각하니 다들 다르게 보인다. 다들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절에서 만나는 젊은 보살님 얼굴을 볼 때면 문득 ‘아 저 보살님도 법문 받고 있는 중인가보다.’ 하는 보살님이 있다. 그냥 나 혼자 생각이다. 본성인지 아닌지 모르게 조금씩 낯선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슬쩍 웃음이 난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불공하면서 법문이나 내적 갈등으로 갈짓자 걸음을 걸을 때, 스승님이나 보살님들의 격려로 나는 조금씩 앞으로 나갈 힘을 얻었던 걸 기억한다. 그 때, 나에게 격려의 말씀을 했던 보살님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신 보살님들이시겠지. 그래서 오랫동안 절에 오시는 보살님들이 존경스럽다. 나무라지 않고 격려라니, 참 훈훈한 기억이 아닐 수 없다.

불공할 때마다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슬그머니

드러나서 불공 안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는데, 자주 나타날 때도 있고,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치통처럼 불쑥불쑥 나한테 나타났다. 그렇게 나타나는 그걸 없애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참회를 한다. 마치 자신하고의 싸움 같은 불공을 나는 해 왔다. 불공을 하는데 왜 그리 치열하고 화나고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더 나아지겠지 생각한다.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이 기든 지든 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다시 불공을 하도록 한다. 나를 내 놓고, 내려 놓고 불공을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떨지 모를 일이다. ‘겁을 먹고 도망가면 어쩌지?’ 하는 마음도 생기고, 도망을 가더라도 멀리 안가고 곧 돌아오겠다는 다짐도 한다.

그래서 새해 불공이나 49일 불공을 마치고 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보살님들도 다 위대해 보이고 존경스럽다. 도망가지 않고 자신과의 싸움 같은 불공을 마쳤으니 말이다. 전우애가 느껴질 때도 있다. 마음이 가쁜하고 어려운 것을 해 냈다는 기쁨 같은 그런 기분. 이상하게 뭔가를 바라는 불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니 놀랍다. 물론 원하는 것이 있으니 꼭 이루어 해 달라고 빌었던 것도 이루어 진 것도 있고 내 근기에 안 맞으면 안 이루어 진 것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올해, 바라는 것 말고, 이루고 싶은 거 말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여여해서 날마다 불공하고 불공이 날마다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일기장에다가 꼭꼭 적어 놓았다. ━

한 겹 고이 접고
꽃 되는 임의 얼굴

별빛 출렁임을
트인 가슴에 품고
미소 던져주는 임의 얼굴

달빛 업고
내내 잠들던 내가슴
새롭게 불 지피는 임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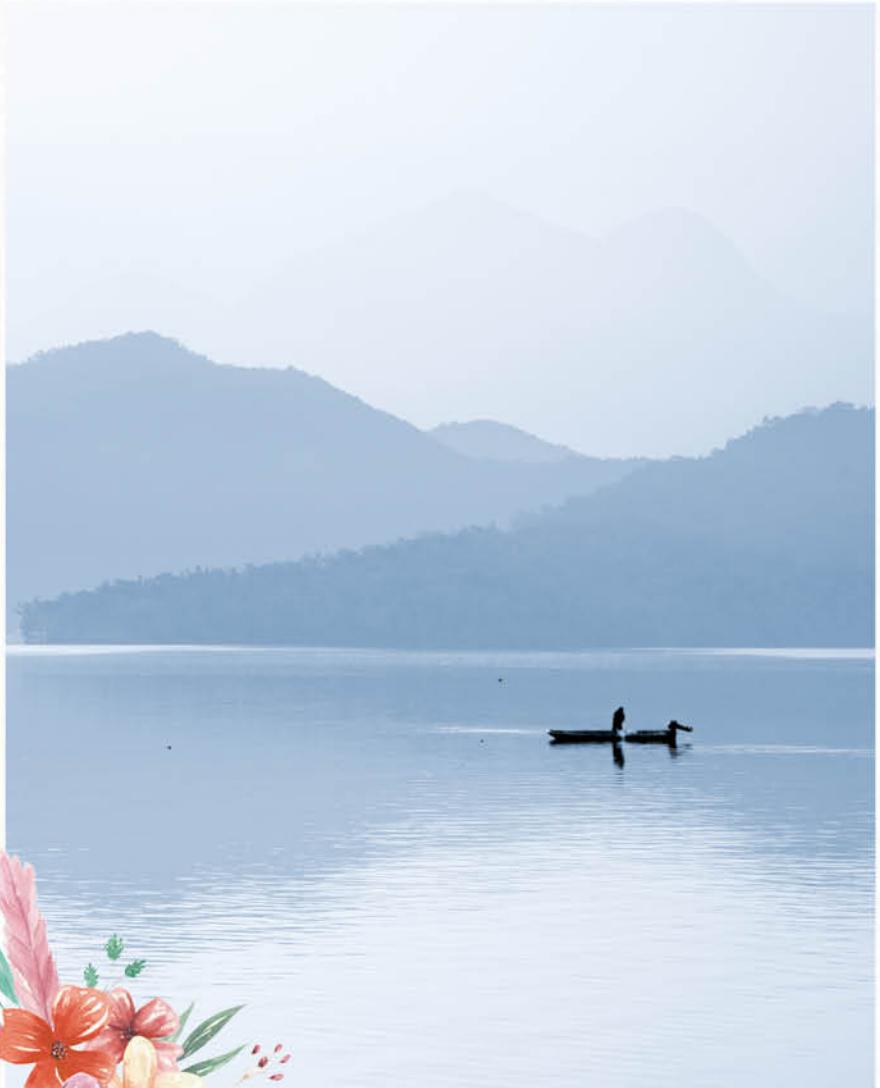
새파란 바람이
내볼을 칼같이 스쳐 지나도
닮아가고픈 내 임의 얼굴

첫날!
그 미소를 담아 봅니다.



사무량심四無量心

덕현 전수
법천사 전수



사무량심四無量心은 중생을 위하는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을 말합니다.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즐거워하고 불선不善한 마음을 갖지 않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무량심입니다.

자무량심慈無量心은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자慈는 사랑·우정 등을 말합니다. 친구, 벗 사이의 우정과 사랑입니다. 배려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며, 상대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소親疏를 따집니다.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 짓고 그에 따라 업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부와 권력의 유무에 따라 달리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慈와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의 안정을 터득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자무량심이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과 우정, 기쁨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무량심悲無量心은 함께 슬퍼해줌으로써 고통과 슬픔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비悲는 연민, 즉 슬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고통이나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고통과 괴로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슬픔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조금은 덜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일어나는 비심^{悲心}을 가져야 비무량심이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은 비심^{悲心}이 아니라 위선일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위로하고 대하는 자세를 길러야 합니다.

희무량심^{喜無量心}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희^희는 기쁠 희, 즉 상대방의 행복을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뿐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려는 대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뜻으로 짓는 악업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남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 인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 내가 더욱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희공덕^{隨喜功德}을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희무량심이라 합니다. 기쁨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 희무량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사무량심^{捨無量心}은 탐욕이 없음을 근본으로 하여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고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중생

을 원수나 친함의 구별을 없애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량심^{捨無量心}은 앞의 자·비·희를 아우르는 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는 자심^{慈心}을 베풀고 어떤 이에게는 자심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심^{慈心}과 비심^{悲心}, 희심^{喜心}을 평등하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무량심^{捨無量心}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네 가지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를 대하기에 앞서 내 마음의 인색함을 버려야 합니다. 인색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비회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말과 행동, 뜻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따라서 사무량심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잡이이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삶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곧 사무량심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



바다를 건너며 渡海

이익(李漁)

1681 - 1763

조선 후기의 실학자



碧海風恬不起波
敢言忠信感蛟鼈
輕舟穩涉能無恙
始驗清淮異汨羅

푸른 바다에 풍파 없어 잔잔하다만
내 충신이 교타를 감동시켜 그런 것이라
작은 배로 탈 없이 잘 건너고서야
청회는 멱라와 다르다는 말 실감하겠네

- 『몽와집(夢窩集)』 권4 「남천록(南遷錄)」

벽해풍념불기파
감언충신감교타
경주온섭능무양
시험청회이멱라

조선 후기의 대신인 몽와^{夢窩} 김창집^{金昌集}(1648~1722)의 시이다. 김창집의 자는 여성^{汝成}이고, 본관은 안동이다. 청음^{淸陰} 김상현^{金尙憲}의 증손자이고,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의 장남이다. 영의정을 지냈으며, 이른바 '노론사 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이다.

김창집 등 대신들을 중심으로 한 노론^{老論}은 경종 1년(1721)에 연잉군^{延英君}의 왕세제^{王世弟} 책봉과 대리청정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는데, 곧바로 명분을 앞세운 소론^{少論}의 반격으로 실각하여 귀양을 가게 되었다. 연잉군은 영조^{英祖}가 왕자일 때의 봉호^{封號}이다. 이 사건을 신축옥사^{辛丑獄事}라고 하는데, 김창집은 이 당시 74세의 고령으로 거제도^{巨濟島}에 위리안치^{圍離安置}되었다.

교타^{蛟鼈}는 바다나 강 속에 살면서 뱃길을 방해한다고 전해지는 수중 동물들로, 이들의 방해 없이 무사히 바다를 건너게 된 안도감이 시에서 느껴진다. 이 시는 북송^{北宋} 때의 곧은 신하인 당개^{唐介}의 시를 점화^{點化}한 것이다.

당개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춘주 별가^{春州別寓}로 좌천되어 가면서 회수^{淮水}를 건널 때였다. 거센 바람에 배가 곧 뒤집힐 듯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



지 않고 초연히 시를 읊었다. ‘좌천되어 회수를 건널 때 바람이 배를 뒤집을 듯하여 짓다.’라는 뜻의 「적관도회풍욕복주이작」嫡官渡淮風欲覆舟而作라는 시이다.

성스러운 송나라는 미친 초나라가 아니니 / 聖宋非狂楚

맑은 회수도 며라수와는 다를 테지 / 清淮異汨羅

한 평생 충신을 지키고 살았으니 / 平生仗忠信

오늘 풍파에 내맡긴들 어떠리 / 今日任風波

어지러운 초나라 때는 충신 굴원屈原이 모함을 받고 조정에서 쫓겨나 며라수에 몸을 던져 죽기도 하였지만, 송나라는 성군의 나라이고 자신은 충신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은 없으리라는 당당한 기개가 담겨 있다. 김창집은 이 시의 의사를 차용하면서도, 자신이 무사히 바다를 건넌 것은 자신보다는 조선이 성군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겸손해하고 있다.

‘감언^{감언}’은 1차적으로는 ‘감히 ~에 대해 말하다.’, ‘과감하게 말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거의 ‘감히 ~라고 말할 수 있으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상황으로 볼 때 감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는 다소 위축된 어기를 담은 용어로, 주로 짹수 구의 첫머리에 많이 쓰인다. 평소 직언을 많이 하던 신하와 관련된 시에서 쓰이게 되면 무의식 중에 ‘과감하게 직언을 하였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감설^{감설}’이라는 시어도 같은 의미로 쓰인다.

1차적 의미로 사용되는 시적 의미로 사용되는, ‘감언’에서 느껴지는 어감은 ‘주저한다.’는 것이다. ‘감히’라는 말 자체에 이미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또는 어려운 대상에 대한 행위를 한다는 전제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인지상정이다.

특히 1차적 의미, 즉 ‘과감하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감언이 알게 모르게 상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크든 작든 다시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이 강요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이 늘 선택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조직이든 중간 지위에서 주어진 권한이 많아질수록 ‘감언’이라는 책임도 함께 커진다. ‘감언’을 하지 않으면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리더가 감언을 받아들일 도량과 식견이 있는데도 감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기만하는 것이 아닐까?

감히 말하랴? 감히 말해야 한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권경열 성과평가실장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울어도 괜찮아

- 벤자민고무나무 Benjamin

이태용
원예 교육가



진짜 눈물과 가짜 눈물의 차이

어린 시절 친구까지 싸움이 불으면 승패는 대개 눈물로 결정이 난다. 먼저 눈물을 보이고 우는 쪽이 지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일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눈물을 보이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다. 특히 남자 어른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눈물은 빈틈이자 나약함을 뜻하니깐. 살아남기 위해서는 슬픈 일에도 슬퍼하지

말아야 하고, 눈물을 흘릴 일에도 눈물을 숨겨야 한다.

물론, 아무리 참아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다. 1980년대, 거리를 뒤덮던 매운 연기는 눈과 코를 자극해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종로 뒷골목에서 팔던 매운 낙지볶음도 눈물에 콧물, 땀까지 범벅이 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처럼 억지로 짜내는 눈물은 진짜 눈물이 아니다.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바로 정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 이것이 있어야만 진짜 눈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도 나는 눈물을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진다. 내 자신에게 좀 더 솔직해진 것 같아 훌기분하기도 하다. 단지 몇 그램의 액체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뿐인데, 이런 변화가 있는 걸 보면 눈물의 힘은 정말 놀랍다.

그저 토닥토닥

학명 'Ficus Benjamina'. 이번 주인공은 바로 벤자민고무나무이다. 눈물 얘기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웬 벤자민고무나무냐고? 그건 벤자민고무나무의 영어 이름이 'Weeping fig'이기 때문이다.

'Weeping'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가 늘어진'이란 뜻이 나온다. 따라서 'Weeping fig'는 '가지가 늘어진 뽕나무과 나무'로 부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Weeping'을 '눈물을

흘리는'으로 해석하고 싶다. '눈물을 흘리는 뽕나무과 나무'로 정의하는 것이 웬지 벤자민고무나무에게 더 어울릴 것 같으니깐.

내가 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는지는 몇 발자국 떨어져 벤자민고무나무를 바라보면 금세 알 수 있다. 기운을 잃은 듯 축 늘어진 가지와 뚝뚝 떨어지는 눈물 방울 같은 잎. 벤자민고무나무의 이런 모습은 깊은 슬픔에 빠진 그 누군가를 떠오르게 한다.

뭉크가 그린 소녀의 어두움이 스쳐 지나가고, 피카소가 그린 게르니카의 참삼이 그 뒤를 잇는다. 뭐가 그리 슬픈지 물어보고 싶지만 차마 용기는 나지 않고, 그저 곁에서 토닥여 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

눈물은 힘을 준다

우수수 잎을 떨어뜨리며 실컷 울고 난 다음 벤자민고무나무는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힘들어 하지 않는다. 사람도 실컷 울고 나면 새로운 힘이 생기듯 벤자민고무나무도 잎을 떨어뜨리고 나면 새잎을 낸다. 새로운 환경에 비로소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새 환경에 적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별 탈 없이 잘 자란다. 원래 벤자민고무나무가 까다로운 나무는 아니니까.

벤자민고무나무를 곁에 놓아 보세요. 가족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은 아빠도, 울 일은 많지만 울 기운조차 나지 않는 엄마도, 울면 창피 할 것 같아 꼭 참고 있는 아이들도 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맘껏 털어놓으면 좋겠다.

벤자민고무나무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대신 눈물을 흘려줄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벤자민고무나무의 눈물을 보며 우리의 마음 정화시키기, 꽉꽉 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경험 아닐까? ━





어떤 임금님이 늦게 공주 하나를 두었습니다.

‘저 딸이 언제 다 크겠나? 어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용하다는 의사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용한 의원이라고 들었소. 공주가 빨리 컸으면 좋겠는데 키 크는 약을 먹여 주시오.”

의사는 기가 막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키 크는 약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의사는 금방 좋은 생각이 떠올라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예, 키를 잘 크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이기 시작하면 키가 다 자랄 때까지 부모 되시는 분을 만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야 기다릴 수 있지.”

이렇게 하여 의사는 공주를 데려와 같이 있게 했습니다.

약을 먹이기는 했지만 실제 키가 크는 약은 아니었습니다.

12년이 지나자 공주의 키는 다 자랐습니다. 의사는 공주를 데리고 임금님 앞에 갔습니다.

“대왕님! 그 키 크는 약은 참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주님이 이렇게 성장해서 예쁜 아가씨가 되셨습니다.”

의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과연 천하제일의 명의로다.”

그리고 많은 상을 내렸습니다. ■



월출산 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물들 무렵, 드넓은 절터 한복판에 한 노인이 흰 수염을 날리며 못 박힌 듯 망연히 서 있다. 간혹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발아래 널려 있는 서까래를 세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다시 눕힌 후 자로 재기 시작한다. 신중한 움직임은 보는 이들 마저 숨을 죽이게 했다. 석양빛마저 사라진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되풀이하여 서까래 재기를 멈추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로다. 아무래도 짧으니 알 수 없는 일이로다.’ 노인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때는 신라 말엽. 왕은 날로 기우는 국운을 걱정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기슭에 99칸 대웅보전 불사를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할 것을 엄명하였다. 서까래를 재고 있던 노인이 대목수 사보
라였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려면 하늘을 차고 나를 듯 치솟은 기상
의 멋을 한껏 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서까래를 잘 다듬어야 했
다. 이런 연유로 당대의 뛰어난 대목수 사보라 노인에게 이 일이 맡겨
졌다.

팔순이 넘은 노인은 이 불사를 필생의 작업으로 삼아 온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동료 목수들의 거들음도 마다하고, 5백 개의 서까래를 상량을 며칠 앞두고 다 깎았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낱낱이 자로 재면서 깎은 서까래가 도면보다 짧게 깎여져 있었던 것이다. 사보라는 재고 또 재 보았으나 한 번 짧게 끊긴 서까래가 길어질 일이 없었다.

국수라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비참히 무너짐은 당연한 일이 고 국사를 망쳤으니 그 엄중한 벌은 어찌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다. 그는 서 있는 나무만 보아도 나무의 나이를 알았고, 껍질 속이 어떤지 도 알 정도였다. 사보라 노인에게 있어 집짓는 일은 창조의 희열을 동반하는 예술이며 삶의 보람이었다. 생명의 불꽃이 하루아침에 꺼지는 듯 했다.

집에 돌아온 그 길로 침식을 끊고 사람을 멀리하며 절망의 밑바닥에서 안간힘을 썼다. 스승에게 허락을 받고 끌을 쥐었을 때의 감회가 새삼스레 느껴져 힘을 내어 일어났다가도 해결 할 길 없는 상황에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기를 며칠 째 며느리가 상도 물리고 약도 마다하는 안

타까움에 조심히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나 노인은 해결 할 길 없는 자신의 잘못을 말 해 무얼 할까 싶어 며느리의 걱정도 거절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고 간곡히 청을 했고 어쩔수 없이 사정을 들려주었다. 며느리 또한 눈앞이 캄캄했으나 아무 기색 없이 물러나 마당에 섰다. 온 집안이 무거운 근심 속에 잠겼다.

그날 불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이들이 노인의 병문안을 왔다. “이제 상량을 하고 서까래만 올리면 일은 거의 끝난 셈이니 부처님의 가피로 쾌차하시길 겁니다.”라는 그들의 위로에 노인은 더욱더 말을 잃었다.

병문안 온 이들을 전송하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눈앞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한 줄로 가지런한 서까래가 두 줄로 보였다. 처마 밑으로 바짝 다가가서 보니 다시 한 줄, 며느리는 깨달았다. 집안과 바깥 불빛이 어우러져 그림자가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 순간 번쩍이는 생각에 며느리는 사보라 노인에게 달려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짧은 서까래에 다른 서까래를 겹쳐 대면 더 웅장하고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얼른 이해되지 않아 한동안 망연하던 노인의 눈앞에 날아갈듯 한 한 채의 건물이 보였다. 짧은 홍분이 노인의 전신에 생기를 돋웠다.

“그렇구나! 부연^{附延}하면 된다. 그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몸매가 선하구나. 부연한 그 지붕의 멋을 감히 누가 흉내 낼 수 있겠느냐.”

사보라 노인은 언제 누워 있었느냐는 듯 한달음에 절터로 달려가온 몸에 달빛을 받으며 기둥과 기둥, 대들보에서 처마 끝을 재는 노인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다. 교교한 달빛 속에 흰 수염을 날리며 신들린 듯 부연을 켜기 시작 한 노인의 표정은 엄숙 또 엄숙했다.

이리하여 세워진 도갑사^{道岬寺}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附延式} 지붕 건물이 됐다.

며느리가 도와서 된 서까래라 해서 婦延이라고도 한다. 지방문화재 42호였으나 75년 화재로 전소 돼 79년 옛 모습 그대로 다시 중창됐다.

한 번씩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생각나지 않던 답이 불현듯 생각났다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데 생각나지 않다가 다른 일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 물건의 위치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복잡한 상황을 잠시 벗어나 무작정 여행길에 올라 그 일들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밀도를 측정하는 법을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라는 조언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뒤로 물러나 있다 보면 상황이 어느새 바뀌어 있는 것을 경험을 종종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바꾸려거나 매달려서 보지 못해 놓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나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기도생활이 함께 한다면 이런 지혜를 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은 자신의 생활을 살피는 지혜를 주고, 정리되고 준비된 마음에 자신감을 갖게 해 줍니다. 기도생활을 꾸준히 하는 교도들을 보면 여유로움과 너그러움이 느껴집니다. 안정된 마음에 지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주 한 알 한 알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지혜가 생기길 함께 정진해 봅니다. ▲

처음처럼

지현 전수
자석사 전수

처음처럼

- 신영복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이다.

고통은 나쁜 것이라는 착각

법상 스님



고통, 역경, 슬픔, 불안, 불편, 아픔, 병 등,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삶을 방해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들이 그것이다.

장자의 혼돈을 애써 들먹이지 않더라도,
혼돈이란 오히려 진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 무엇일 수 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실수, 불행이라고 진단하지는 말라.

진리가 반드시
'잘 풀리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성공적인 느낌',
'정상적인 느낌'일 필요는 없다.

때때로 진리는
그 반대의 느낌을 통해 오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지금 내 기분, 느낌, 판단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는가다.

판단을 빼고, 해석을 빼고,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는 판단,
불행하거나 행복하다는 분별을 빼고,
그저 거기에 있어 보라.

때때로 비정상적이거나, 불행하게 느껴지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잘 안 풀리는 방식의 경험을 통해 오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 때가 언제일까?

현재가 시킬 때!

내 삶이 그 위에서 있을 때!

그 때는 다만 그것을

활짝 열고 경험해 주라.

고통이 경험되도록, 아픔이 표현되도록,

존재가 무너져 내리고 부서지도록 허용해 주라.

그것이 지금 나에게 왔다면,

그것은 곧 경험됨으로써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 온 것이다.

그 진리를 마음껏 살아주라.

죽지 않으니.

정상적이어야 한다거나,
성공적이어야 한다거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내 스스로 만들어 낸
하나의 생각, 분별일 수도 있지 않은가?

새옹지마란 말처럼 말이다.

비바람치는 순간,
그 비바람을 온 몸으로 맞아 보라.

그것이 당신을 풀려나게 한다.
진실과 마주하게 한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한철 노래하며
사는 인생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 개미와 베짱이

박현희
사회과 교사



죽거나 뉘우치거나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장에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라는 구호가 커다란 페인트 글씨로 써 있었다. 1970년대였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던 시절이었다.

게으름과 태만은 우리의 적이었으며 근면과 성실은 최고의 선이었다. 그 시절 모든 학생들이 암송해야 했던 국민 교육 현장도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 를 창조하자.”라면 근면, 노력을 강조하면서 끝을 맷지 않았던가.

그 시절 상상을 초월한 장시간 노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두 말 할 나위 없이 군사 정권의 막강 파워 덕분이었지만 그 체제가

무조건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었을까?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한 설득 논리 또한 필요했을 것이다. 그 설득 논리의 연장선상에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개미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무더운 여름에도 예외는 없었다.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베짱이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일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추운 겨울에 대비하지 못했다. 겨울이 되자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다.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초라한 모습으로 개미네 집 문을 두드린다. 도와달라고.

개미는 어떻게 했더라? 베짱이는 어떻게 되었지? 어떤 책에서는 개미가 문을 열고 베짱이를 따뜻하게 맞아 주면서 앞으로 ‘열심히 살라.’라는 충고를 하자 베짱이가 참회를 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개미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베짱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다고도 한다. 어떤 식의 엔딩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개미는 좋은 편이고 베짱이는 나쁜 편이라는 것. 좋은 편 개미는 승리하고 나쁜 편 베짱이는 패배한다. 죽거나 뉘우치거나.

지금은 베짱이의 세상인가?

이제 세상에는 베짱이를 친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에게는 밥도 필요하지만 노래도 필요하다. 베짱이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짱이의 연주 덕분에 개미들은 일을 하며 시름을 잊지 않았던가. 베짱이의 연주로부터 즐거움을 얻었으니 개미들은 마땅히 베짱이에게 겨울을 날 보금자리와 양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게 되었다. 세상이 변한 듯하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쉽게 변하겠는가. 우리는 여전히 개미의 세상에 산다. 아래에 질문이 하나 있다. 무언가를 증명한답시고 문제부터 들이대는 품이 지나치게 선생스럽지만, 안심하시라.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게다가 찍기도 가능한 객관식이니 논술 시험에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당신도 수월하게 답 할 수 있다.

베짱이의 삶을 지지하지만……

개미의 세상에서 베짱이 지지자들의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베짱이처럼 사는 삶도 가능하겠지만, 손가락질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내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 베짱이가 추운 겨울 도움을 구하기 위해 두드릴 문이 내 집 현관문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나는 겨울을 위해 양식과 떨감을 모아 놓았지만, 그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내가 베짱이를 위한답시고 가족을 위한 양식을 탕진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둘째, 그 베짱이는 나와 무관해야 한다. 내 가족 중에 베짱이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내 자식이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젊은 놈이 대책도 없이 취직할 생각도 안하고 깽깽이나 껴안고 산다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셋째, 베짱이도 베짱이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 예술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감과 위안을 주는 예술 활동으로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런 기여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봐 줄 것이고, 문화 산업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정착해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오히려 돈과 명예 모두를 거머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겨울날 개미네 집 문 앞에서 서성거릴 이유가 없다.

만약 그가 배고픈 예술가라면? 그건 그가 재능도 없는데 헛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빨리 정신 차리고 개미의 대열로 복귀해야 한다. 한마디로 베짱이도 아닌 것이 베짱이인 줄 착각하지 말고 꿈 깨란 말이다.

다시 말해 요즘의 세련된 개미 세상에서는 베짱이의 삶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개미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개미와 무관하거나, 개미에게 기여하는 선에서만 그렇다.

그런데 이게 나쁜가? 개미의 삶이 뭐가 어렵다고?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위해 자축하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살겠다는데 왜 시비를 거는가? ━



나에겐 좋은 친구가 있다.

여고 1학년부터 지금까지 삼십년 넘게 사귄 친구다.

그 애와 함께한 시간이 나빴던 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둘다 힘든 시기를 같이 한 것 같다.

혼자서 살아가기 힘들다 여길 때 내 가족이 되어 주었고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던 사람…….

겨울바람이 부는 지금 누군가와 대화를 해보아도 만족을 못하는 건 그 친구 때문일까?

사실 친구는 암 투병 중이다.

정신력이 남보다 강해서 아픈 와중에도 나에게 연락을 했었다.

암 투병 환자를 본 적이 없어 난 나름 힘든 면이 있었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연락이 되었는데 지금은 전화조차 할 기력이 없다고 한다.

그 애를 만나러 그 애 집에 갈 때 대문에서 서서 “우리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빌었다.

다행히 친구는 암 투병의 고통 속에서도 밝게 웃으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못난 나를 친구라고 끝까지 생각하던 그 애의 마음에 난 고마워 한다. 우리의 오랜 만남동안 서로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몰랐던 거 같아 아쉬움만 남는다.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다.

힘들지 않기를……. 아픔속에서 행복하기를…….

난 50대가 되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종교생활 속에서도 스승님들 도움으로 새롭게 바뀌어 가고 있다. 내 힘든 업의 인연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렇게 풀리는데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요양하기 좋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 말은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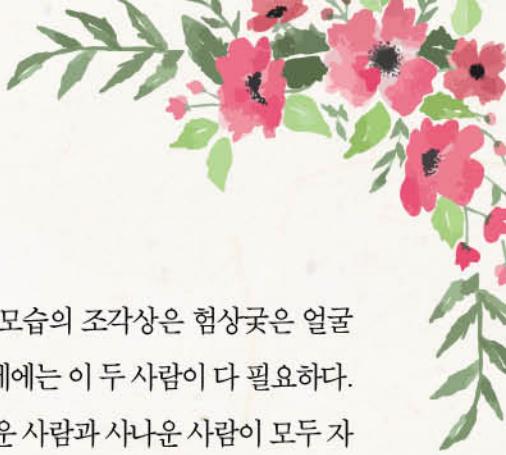
요즘은 꿈속에서만 그 애를 만난다.

난 꿈속에서 그 애를 보는데 그 애 꿈엔 내가 찾아가는지 알 길이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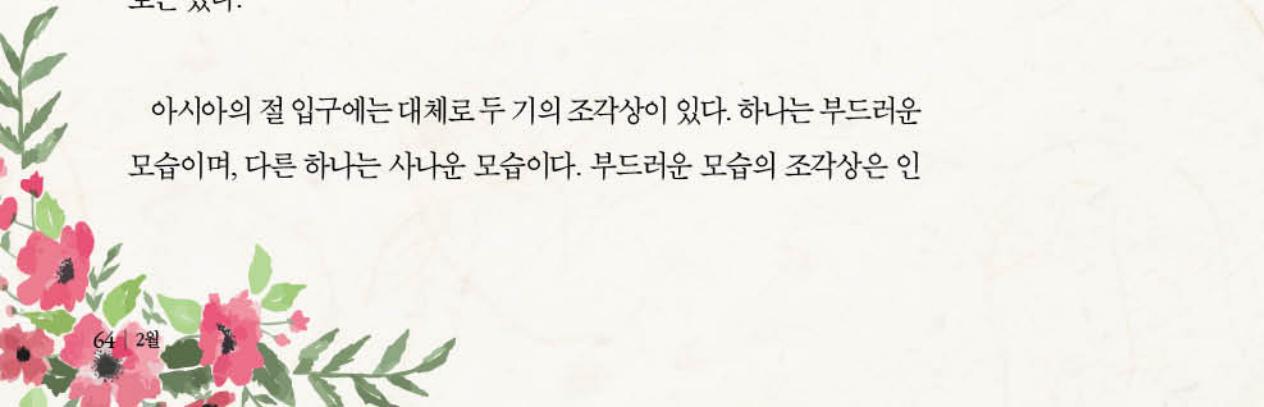
불교의 전통을 면면히 이어 온 스님들은 수행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마련해 놓았다. 달콤한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달콤한 약을 주고, 쓴 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쓴 약을 주는 것이 방법의 핵심이다. 즉, 융통성이 필요한 대에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고, 단호함이 필요할 때에는 단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늘 자비심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자비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건전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지혜로운 방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 공동체를 일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드러워야 할 때와 단호해야 할 때를 바로 아는 것이다. 상황이 악화될 때에는 더 이상 나쁜 것이 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잘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단호하게 베어 내는 것만이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길인 경우도 때로는 있다.

아시아의 절 입구에는 대체로 두 기의 조각상이 있다. 하나는 부드러운 모습이며, 다른 하나는 사나운 모습이다. 부드러운 모습의 조각상은 인



자한 얼굴에 연꽃을 들고 있다. 사나운 모습의 조각상은 험상궂은 얼굴에 무기를 들고 있다. 공동체를 일구는 데에는 이 두 사람이 다 필요하다. 봇다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면 부드러운 사람과 사나운 사람이 모두 자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이 현현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부드러운 사람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고 칭찬한다. “괜찮아. 잘했어. 두려워하지 마.” 사나운 사람은 경고한다. “바보 같은 짓 좀 그만 해라. 계속 그러면 혼내 준다.” 하지만 실은 사나운 사람도 온화한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얼굴은 매우 무서울지 모르지만 마음속은 자비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드러운 얼굴도, 사나운 얼굴도 지혜를 깨우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달을 때 관세음보살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세음보살이 언제나 부드럽고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든 다 받아 준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아우를 둔 형이나 언니라면 관세음보살의 그런 면을 배워야만 한다. 사랑을 하되 그 사랑을 잘못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르고 쳐 내야 할 가지에는 과감하게 칼을 대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영원한 고통은 아니다. 마치 수술할 때에는 고통스럽지만 종국에는 환자의 건강이 좋아지는 이치와도 같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4)

우연
자석사 교도

7월 31일 화요일, 드디어 바간 입성.

바간은 지역 전체가 세계 불교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캄보디아의 앙코르 왓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숙소는 풀장을 갖춘 3층 규모의 근사한 호텔이었다. 첫날은 밀린 빨래와 함께 충분한 휴식을 갖기로 했다. 호텔 경내를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처럼 이곳저곳을 혼자서 기웃거려 보는 재미도 솔솔 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투어에 나섰다. 사실 친구들은 속도가 있는 스쿠터를 타고 싶어 했으나 한 번도 타 본적이 없다는 나의 불안한 고백에 자전거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바간은 3개 구역으로 나뉜다. 올드 바간, 뉴 바간, 냥우다. 유적지 대부분은 올드 바간에 몰려 있었다. 길은 황토 마사길이었다. 우리는 시간이 멈춘 1000년의 역

사 속으로 힘차게 폐달을 밟았다. 황량한 벌판에는 사람은 떠나고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올드 바간에 살던 사람들을 뉴 바간 지역으로 전부 이주 시켰다고 한다.

바간은 미얀마의 첫 통일 왕국으로서 200년간 번영을 누렸다고 한다. 당시에는 5000여개의 불탑이 산재 해 있었다고 하나, 1287년 몽골의 침공과 1975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불탑과 사원이 파괴되어 지금은 2500 여개의 불탑만이 남아 있다고 한다.

흙먼지를 날리면서 한참을 달리다 멈춘 곳은 길 한편에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개의 파고다가 모여 있는 곳이었다. 주위는 몇 그루의 나무만이 묵묵히 파고다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거운 적막감만이 길손을 맞이하고 있었다. 세월의 부침^{浮沈}을 말 해주는 듯 했다.

자전거가 다시 도착 한 곳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를 상징한다는 아난다 파고다였다. 바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고다라고 했다. 사원의 내부는 정사각형으로 출입구가 나 있었고 동서남북의 각 방향을 따라 여



성을 연상케 하는 대형 입불상을 모시고 있었다. 특히 남쪽 입불상은 부처의 얼굴이 가까이 다가가면 근엄하고, 뒤로 물러나면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다음 찾은 곳은 담마양지 사원이었다. 바간의 최대 사원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 웅장함에 압도되기에 충분했다. 1167년 나라투 왕은 왕위 친탈을 위해 아버지와 형, 아들 등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한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 위해 이 사원을 건설했다고 한다. 그러나 왕의 죄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일몰로 유명한 쉐산도 파고다를 찾았다. 파고다의 외벽 계단에 올라 일몰을 바라보면서 평원으로 펼쳐지는 파고다의 파노라마는 가히 한 폭의 몽유도^{夢遊圖}라고 했다. 아쉽게도 파고다는 공사 수리 중이어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가이드 없이 출발한 우리만의 투어는 오로지 지도 한 장과 스마트폰 만이 유일한 길라잡이였다. 서툰 나의 자전거 실력은 앞서 가는 자전거를 따라 잡기에도 급급했다. 바간을 보았다고 말하기에는 주마간산^{走馬看山}이었을 것이다. 숙소에 돌아왔어도 바간의 하루는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떠나지를 않았다.

다음날 인레 호수로 향했다. 버스로 8시간을 타고 고산준봉을 넘어야 했다. 인레 호수는 미얀마 북동부 산주 900미터 고산지대에 위치한 담수호였다. 도착한 낭遗留 마을은 여행자들에게 베이스캠프로 불리는 곳이었다. 산책 겸 동네 길을 따라 호숫가로 나갔다. 해거름의 호수에서 여인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감고 있는 사람, 론지를



가슴 위로 올리고서 감춰진 몸을 씻고 있는 사람… 사진에서나 보았을 만한 그들의 모습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다음날,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아갔다. 인레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2킬로, 동서의 폭이 11킬로미터로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라고 한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호수는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호수 저편에서 카누처럼 생긴 보트가 물살을 일으키면서 지나갔다. 수상호텔, 불교사원, 학교, 크고 작은 수상가옥들이 시야에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졌다. 정지한 듯 떠 있는 보트에서는 보트위에서 한 쪽 발로 노를 저으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5일장이 열리는 호수 최남단의 따웅투에 도착했다. 5일장은 마치 우리나라 60년대의 시골 장터를 보는 듯 했다. 보트 위에는 수상가옥에서 사용 할 장작더미가 실려 있었고, 과일, 옷, 농기구 등 각종의 잡화물은 노점 판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 마인따우 수상마을을 찾았다. 수초를 모아 만든 수경 농장에



서는 토마토가 자라고 있었다. 수초로 만든 담장, 대나무로 만들어진 대문, 가옥과 가옥 사이로 골목길도 나 있었다. 수상가옥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어린이, 보트를 노 저어 동네 마실을 가고 있는 사람도 보였다. 어느 시골마을의 풍경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인레를 떠나 마지막 여행지인 양곤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 스스로 11시간 걸리는 것을 비행기로는 1시간 10분이면 되었다.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하니 비가 내렸다. 쇼핑 장소로 유명한 보족 아웅산 시장을 찾았을 때는 파안이나 바고에서 보았던 그런 엄청난 비가 쏟아졌다. 비는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를 못했다. 몸살 증세도 많이 사라졌다. 이를 후면 양곤을 떠나 귀국 한다는 설렘이 몸 컨디션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양곤은 인구 650만 명이 살고 있는 미얀마의 제1의 도시다. 1989년

이전까지는 미얀마의 수도였다. 미얀마 불교 3대 성지 중 한 곳으로 불리는 쇄다곤 파고다를 찾아 나섰다. 택시를 타기 위해 길 한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녕하세요?’라고 물어 왔다. 그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6년간 근로자로 일을 했다고 했다. 한국에서 벌어 온 돈으로 자식을 외국인 학교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자랑을 했다. 그의 도움으로 택시를 탈 수 있었다. 인연은 국경을 넘어 이어 지고 있었다.

쇄다곤 파고다는 엄청난 규모였다. 전체 사원의 면적이 1만평, 중심에 세워진 주탑의 높이가 99미터, 둘레가 426미터, 그 주변으로 72개의 탑과 건물이 빙 둘러 세워져 있다고 한다. 파고다에 들어간 금이 수십 톤에 이른다고 한다. 미얀마의 영웅 아웅산 장군이 영국을 향해 독립을 외치면서 대규모 연설을 한 곳도 이곳이라 했다. 미얀마 국민들로부터 종교적, 정치적 성지로 존경을 받고 있는 곳이었다. 저녁 어둠이 깔리자 조명 불빛을 받은 황금불상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 지어 서서 각자의 소원을 빌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뒤 돌아보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뚝 솟은 파고다의 황금불빛이 양곤 전역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과연 미얀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며 미얀마의 자존심이라 하겠다.

양곤 공항으로 가는 중간에 인야 호수 근처의 미얀마 플라자에 들렀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대형 쇼핑몰이었다. 출입구로 들어서자 삼성 갤럭시 휴대폰 광고 간판이 한 눈에 들어 왔다. 1층의 전시장 중심에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가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3층 식당가로 올라가니 고급스런 한국식당이 여기저기에 눈에 띄었다. 분명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미얀마 플라자에서 만난 여자들의 얼굴에는 다나카 대신 화장품을, 론지 대신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은둔의 나라, 침묵의 나라 미얀마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한국식당 서라벌에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을 알리는 조촐한 해단식을 가졌다. 서로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용기에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양곤 공항을 떠나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자 나도 모르게 휴~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이 새어 나왔다. 점점 멀어져가는 육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광활한 우주 속에 한 마리의 작은 새가 되어 날고 있었다. 잠을 청하고자 눈을 감으니 지나간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태국의 쇄이강의 다리가 보이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만달레이 평원이 나타났다. 사가잉 언덕 아래 천상의 정원에서는 미얀마 소녀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바간의 불탑사이로 1000년 전의 초인이 말을 달리고 있었다. 나는 장자의 호접몽에 나비가 되어 날고 있었다.

기내 방송에 눈을 뜨니 비행기는 대한 상공을 날고 있었다. 하늘은 청명하고 산과 바다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다. ▲

- 다나카 : 자외선 피부 보호제로 얼굴에 바르는 미얀마의 천년 화장제.
- 장자의 호접몽 : 장자의 꿈에서 나비가 장자인지 장자가 나비인지 알지 못했다는 고사.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니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음은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 법구경 -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일 정사
벽룡사 주교



한 젊은이가 스승을 찾아와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진심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애절하게 제자 되기를 간청했다. 스승은 젊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를 보내면서 말했다.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스승은 나이든 제자를 불러 젊은이 집으로 보냈다. 젊은이의 결심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젊은이 집으로 가서 큰 상인인체하면서 보수 좋고 안전한 일자리를 주겠다고 해 보거라.”

얼마 안 있어 스승은 젊은이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스승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큰 상인으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족들의 기대 속에 그 일에 전념할까 합니다.”



가장 절박했던 것은

어릴 적 가장 절박했던 것은 빨리 학교에 가는 것이었고, 학창시절 가장 절박했던 것은 어서 어른이 되는 것이었고, 실업자 시절에 가장 절박했던 것은 실업자를 면하는 것이었고, 직장인이 되자 가장 절박했던 것은 여자였고, 여자가 생기자 가장 절박했던 것은 가정이었고, 가장이 되자 가장 절박했던 것은 돈이었지, 돈이 조금 생기자 가장 절박했던 것은 행복이었고, 행복이 조금 있는 듯 하자 가장 절박했던 것은 건강이었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쉬고, 하는 동안 나는 적당히 늙어 있었지.

이렇게 적당히 늙어가는 나는 지금 대체 무엇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절박했던 것이 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맞는지요?!





色 빛 - 색

불교에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다. 윤회의 길과 열반의 길이 그것이다. 윤회하는 길은 세 가지 경계^{三界}, 즉 욕망의 경계인 욕계^{欲界}와 방해물의 경계인 색계^{色界} 그리고 무방해물의 경계인 무색계^{無色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윤회의 경계 중 색계는 기본적으로 신성한 세계이며 방해물의 천상이지만, 여전히 미혹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렇듯 방해물의 의미로 써 색^{색, rūpa}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다섯 덩어리’^{五蘊}의 첫 번째에 해당한다. 부처님의 직접적인 정의는 “비구들여, 그렇다면 왜 방해물[色]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방해된다’고 해서 방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방해되겠습니까? 추위에 의해서도 방해되고, 더위에 의해서도 방해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방해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방해되고, 파리·모기·뙤약볕·파충류와의 접촉에 의해서도 방해됩니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방해된다 고 해서 방해물이라고 합니다.”이다.

두 번째로 색^{색, rūpa}은 12연기의 명색^{名色, nāma-rūpa}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에 서의 정의는 “네 가지 큰 생성체들”(四大; 흙·물·불·바람)과 네 가지 큰 생성체들을 포착하는 것으로서의 방해물”로 되어 있다. 이 정의로 보면 ‘색^{rūpa}’은 요즘의 물리 과학적인 물질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방해물^{rūpa}은 흙·물·불·바람을 가리키는 물질적인 것임에 분명하지만 단순히 객관적인 외부의 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포착하는 것으로서의’^{upāda}라는 인식론적인 의미가 결부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rūpa’는 여섯 영역[六入]의 하나인 눈의 대상이다. 눈의 대상이 형태와 색깔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rūpa’를 형색이라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rūpa’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세 가지를 종합하여 생각해 보면 ‘rūpa’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고 걸리며 방해되는 물질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방해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맥구읍인

麥
丘
邑
人



麥 보리 - 맥
呂 고을 - 읍

丘 언덕 - 구
人 사람 - 인

- ① 곱고 덕스럽게 늙은 사람을 뜻하며, 현명한 노인을 의미
- ② 배움이 부족해서 현명한 사람의 깊은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

제齊나라 환공桓公이 어느 날 ‘맥구麥丘’라고 하는 산동 지방의 한 시골로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의 풍모가 참으로 그럴 듯하고 지혜로워 보였으므로, 환공은 수레를 멈추고 대화를 하게 되었다.

“노인장은 고향이 어디요”

“예, 이곳 맥구읍입니다.”

“연세는 얼마나 되시오”

“올해 여든 세 살이옵니다.”

“수복壽福을 타고난 노인이시군. 그대의 장수長壽로써 과인을 축원해 주면 고맙겠구려.”

“임금님을 축원합니다. 임금께서는 오래오래 장수하소서. 돈과 옥을 천한 것으로 보시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소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한 말씀 더 해주시지요.”

“임금님을 축원합니다. 임금께서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게 하소서. 간언하는 자를 항상 결에 있게 하는 현명한 분이 되게 하소서.”

“옳은 말씀이오. 덕스러운 자는 외롭지 않은 법이지요. 한 말씀만 더 해주시구려.”

“임금님을 축원합니다. 임금께서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는 분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흐뭇하던 환공은 이 말에 기분이 상해 안색을 바꾸었다.

“과인은 자식이 아비한테 죄짓고 신하가 군주한테 죄짓는다는 말은 들었어도, 군주가 아랫사람한테 죄짓는다는 얘긴 금시초문이오.”

그러자, 노인도 정색을 하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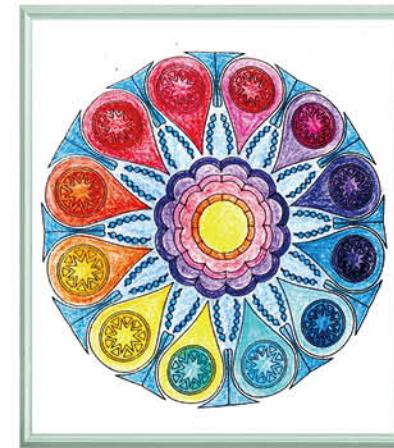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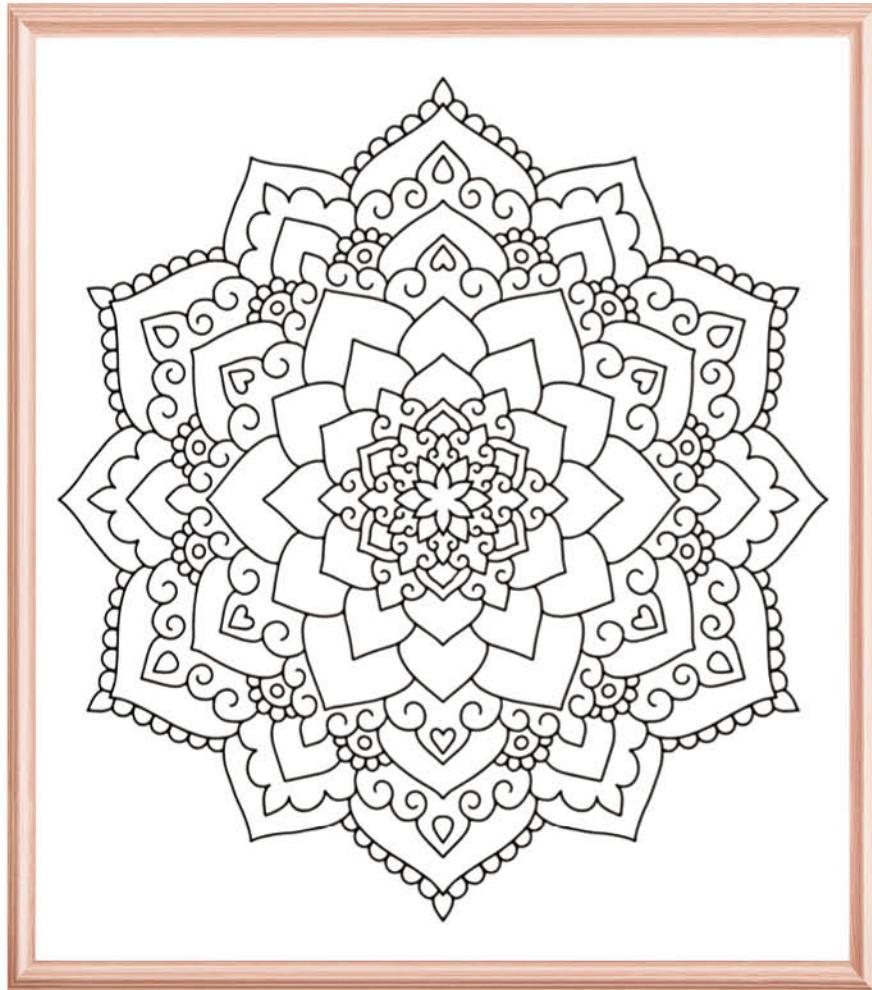
“임금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바른 자식이 아비한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대개 삼촌이나 숙모 때문이니 오해를 풀어 아비가 용서 해 줄 수 있고, 바른 신하가 군주한테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주위의 그릇된 신하들 때문이므로 군주는 역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결傑임금이 탕왕湯王에게 망하고 주纣임금이 무왕武王에게 주살당한 것은 임금이 신하에게 죄지은 셈이지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늘 날까지 사면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서야 환공은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다. 환공은 최대한 공경의 태도로 노인에게 예를 표한 다음, 그를 맥구의 장장에 임명하여 다스리도록 하고 귀로에 올랐다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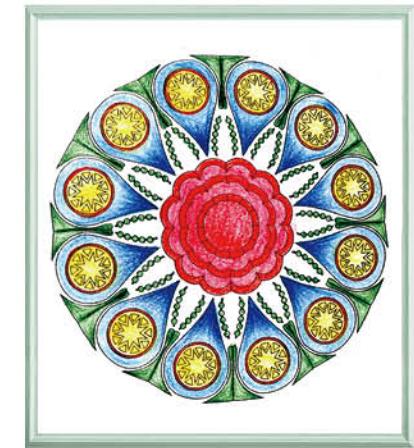
- 구인환「고사성어 따라잡기」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 대구 김혜미 님



▲ 서울 하은수 님

*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발행일 총기 48(2019)년 2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종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새해불공이 끝나고 나니,
바로 한마음캠프 준비를 하게 되었다.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단체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도 아이도 모두 처음이라
걱정반, 설레임반이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을~~~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담담해졌다.

아이들은 부모의 우려와 관계없이
너무도 신이 나고 즐거워했다.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하나 보다.

벌써 기해년의 1/12이 지나가고 있다.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속도만큼,
나도 성장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 새해 다짐을 해본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자.

2월호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업력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즐거운 세계에
악업을 지은 사람은 괴로움의 세계에
이것이 마음의 비밀이고
업력의 불가사의이다

- 환당 대종사 -